

| 이슈페이퍼 2022-08 |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양육환경 실태와 개선과제

이윤진

1. 연구배경
 2. 조사결과: 8개 영역
 3. 정책목표 및 정책방안
- 참고문헌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양육환경 실태와 개선과제*

이윤진 선임연구위원

◆◆ 요약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환경의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일반가정의 양육환경과 비교분석함. 이에 총 8개 영역별로 일반가정(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과 비교함.
- 건강영역: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평균 4.49점)는 일반가정 영유아 자녀(평균 4.53점)와 비슷하나 주양육자(3.50점)는 일반가정의 주양육자(4.22점)보다 안 좋았음.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자녀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치과치료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12.6%)가 일반가정(1.4%)에 비해 약 9배가량 많았음.
- 발달및교육 영역: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에 대한 희망교육수준은 대학원 이상이(62.9%) 가장 많고 4년제 대학교(32.5%), 전문대학, 고등학교 순인 반면, 일반가정은 4년제 대학교가 81.6%로 가장 많고, 대학원 이상은 11.4%에 그침.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 관계 영역: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주변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도움, 육아·가사 등의 생활적 도움을 일반가정에 비해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가구가 이러한 도움에서 가장 취약함.
- 양육및돌봄 영역: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어린이집·유치원을 대부분(83.4%) 다니고 있으며 월 평균 비용은 약 26만원임. 방과 후에는 대부분 집에서 주양육자(모)가 돌봄.
- 여가및활동 영역과 안전및위험행동 영역: TV 시청과 책읽기는 일반가정의 영유아들이, 스마트폰 및 컴퓨터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들이 더 많이 이용함. 또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안전수칙을 대체로 잘 준수하는 것으로 보고함.
- 주거및지역사회환경 영역: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약 76%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 방 개수는 2.2개로 일반가정 2.6개보다 적음. 집 주변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일반가정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물질적 환경: 아동결핍지수에서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약 83%가 결핍수준으로 나타나, 일반가정의 약 40%에 비해 2배 정도 결핍한 것으로 나타남. 박탈지수에서도 약 11.7점으로 일반가정의 약 8.6점보다 많음.

- 정책방안으로 탈북민 심리치료 주치의사업(안) 도입, 북한이탈주민 수급·한부모가구 영유아에게 우선적으로 치과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수급·비수급 한부모가구에 산후조리서비스 우선 지원,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명시, 미래행복통장 가입 범위 확대, 어린이집·유치원을 부모교육 및 육아정보 플랫폼으로 활용, 북한이탈주민 가정 실태조사 법제 도화를 제시함.

1 연구배경

가. 연구의 필요성

- 전국 규모의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의 육아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한 조사는 실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성장발달, 육아환경 등이 어느 정도이며 또한, 취약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는 실증적인 데이터가 부재함.
 - ◆ 이들 가정 영유아의 육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가정(취약계층 가정 포함) 영유아와의 비교분석이 필요함.

나. 연구 목적

-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성장발달, 육아환경 등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문항을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일반가정(취약계층 가정 포함) 영유아와 비교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 통계자료 부재로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북한이탈주민 가정에서 한부모 가정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일부 문항을 차용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 기본과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 (이윤진·박창현·김문정, 2021)」를 기반으로 작성됨

다. 연구방법

■ 설문조사

- ◆ 만0~5세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 150명 대상으로 실시, 최종 151명을 표집함.
- ◆ 본 설문조사의 설문문항 총 영역은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와 동일하게 8개 영역이며 설문문항은 총 53개임.
- ◆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한부모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에서 영유아 가구를 추출하여 이를 본 설문조사에서 산출한 데이터와 함께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집단 간 비교분석함(t 검증, chi-square 검증, ANOVA).

2

조사결과: 8개 영역

가. 건강

■ 영유아 자녀의 건강상태

- ◆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자녀(평균 4.49점)와 일반가정 영유아 자녀(평균 4.53점)의 건강상태는 차이가 거의 없음.¹⁾
- ◆ 북한이탈주민 가정 중에서도 한부모가구(평균 4.45점)와 수급가구(평균 4.29점)의 영유아 자녀의 건강이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이들 한부모가구와 수급 가구는 일반가정의 한부모 가구(평균 4.35점)와 수급 가구(평균 4.35점)와 비교해서도 점수가 낮음.
 - 그러나 비수급 가구 간 비교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가정(평균 4.68점)이 일반가정(평균 4.56점)보다 영유아 자녀의 건강상태가 좋음.

1) 평균은 매우 나쁘다 1점~매우 좋다 5점으로 산출한 결과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의미임.

■ 주양육자의 건강상태

- ◆ 주양육자의 건강(3.50점)이 일반가정(4.22점)보다 현저하게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남.
- ◆ 특히, 주양육자의 우울수준이 상당히 높음.²⁾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도 한부모가구(13.2점)가 가장 높고, 수급가구(12.8점), 비수급가구(9.4점), 양부모 가구(9.1점) 순임.

■ 영유아 자녀의 병의원·치과치료 실태

- ◆ 자녀가 아플 때, 적절한 병의원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6.6%)가 일반가정(2.2%)에 비해 3배가량 많았고, 치과치료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12.6%)가 일반가정(1.4%)에 비해 약 9배 정도 많았음.

나. 발달 및 교육

■ 인지 및 언어발달

- ◆ 영유아의 인지발달(평균 2.44점)이 일반가정의 영유아들(평균 2.17점)보다 점수가 높음. 영유아의 언어발달 역시, 2.44점으로 일반가정의 2.16점보다 높음(설문조사 응답자의 자기보고식 평가 결과).³⁾
 -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는 한부모,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영유아 언어 및 인지발달 수준이 낮았음.

■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⁴⁾

- ◆ 정서성은 평균 14.25점으로 일반가정 13.64점보다 높게 나와서 부정적인 정서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활동성은 평균 19.94점으로 일반가정 16.56점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사회성은 평균 37.65점으로 일반가정 33.82점보다 높아 사교적 기질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는 한부모, 수급,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의 영유아들이 정서성 점수가 높고, 활동성과 사회성 점수가 낮음.

2) 우울수준을 측정하는 11개의 하위문항의 총점으로 점수가 클수록 우울수준이 높다는 의미임.

3) 아동의 월령기준에 따른 인지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8개의 하위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할 수 없다 0점~잘할 수 있다 3점'으로 평정함).

4) 정서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활동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적이며 사회성은 점수가 높을수록 사교적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류정희 외, 2019: 219)

- ◆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한부모/양부모 가구, 수급/비수급 가구 간 비교에서, 전자의 영유아가 후자보다 부정적 정서가 많고, 활동성과 사회성 기질이 더 발달함.

■ 자녀의 교육수준: 희망교육과 실제교육 간의 차이

- ◆ 자녀의 희망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이(62.9%) 가장 많고 4년제 대학교(32.5%), 전문대학(3.3%), 고등학교(1.3%) 순임. 그러나 실제 가능한 자녀의 교육수준에서는 4년제 대학교가 43%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 37.1%, 전문대학 9.3% 순으로 1순위가 바뀜.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희망교육과 실제 가능교육 사이의 간극이 큰 것도 확인할 수 있었음.
- ◆ 반면, 일반가정에서는 자녀의 희망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가 81.6%로 절대적으로 많고, 대학원 이상은 11.4%이며 실제 가능한 자녀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교 78.9%, 대학원 이상은 10.0%임.
 - 일반가정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교육 기대수준보다 낮으며, 희망교육과 실제 가능 교육 간의 차이도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다. 관계

■ 사회자본: 경제적 도움, 정서적 도움, 생활의 도움, 정보적 도움⁵⁾

- ◆ 가족 또는 지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정도를 일반가정과 비교하면, 탈북 가정은 평균 1.46점으로 일반가정의 1.69점보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도 한부모가구가 평균 1.39점으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수급가구(평균 1.44점), 비수급가구(평균 1.49점), 양부모가구(평균 1.53점) 순임.
- ◆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정서적 도움에 대해서는 2.05점으로 일반가정 2.23점보다 낮았음.
- ◆ 가사, 육아, 간병과 같은 생활의 도움도 탈북가정은 평균 1.54점으로 일반가정 2.18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와서, 생활의 도움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5) 평균 점수는 '전혀 받지 않는다 1점~매우 많이 받는다 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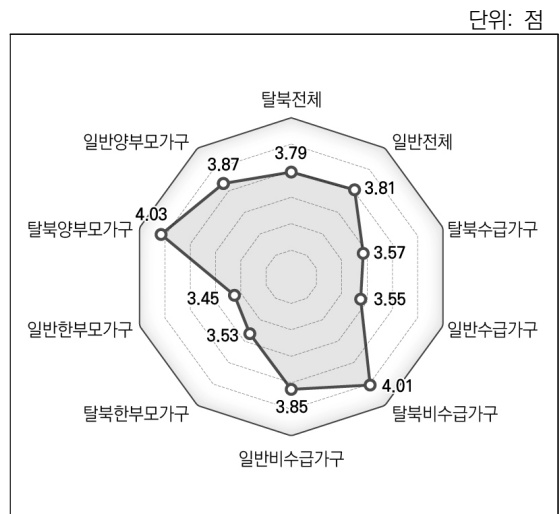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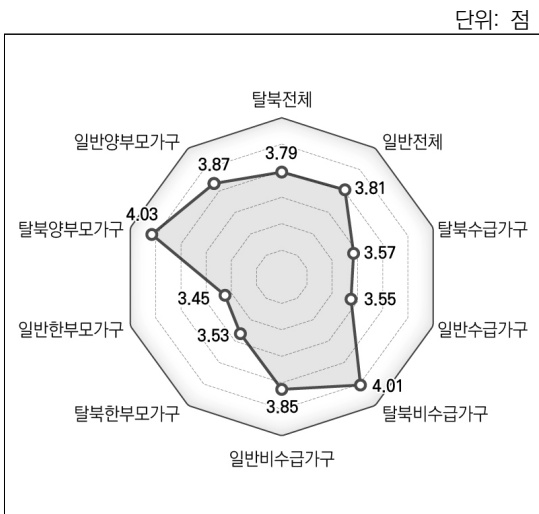
- ◆ 주변으로부터 자녀양육이나 교육 등에 정보를 얻은 도움 정도에서 탈북가정은 평균 2.27점으로, 일반가정 평균 2.37점보다 다소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정보적 도움은 일반가정과 비교해서 취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가족관계: 가족건강성⁶⁾, 부모효능감⁷⁾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가족관계는 평균 3.79점으로 대체로 건강한 것으로 나옴. 이는 일반가정 평균 3.81점에 비해 다소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부모효능감은 평균 3.53점으로 일반가정의 3.47점보다 높음.
 - 북한이탈주민 가정 내에서도 사회자본이 특히 취약한 한부모와 수급가구의 경우, 일반 한부모 및 수급가구와 비교했을 때, 가족건강성 점수가 높음.
- ◆ 가족관계의 건강성, 부모효능감 모두 응답자가 자가 측정한 수치임. 즉,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 결과로써, 응답자인 주양육자는 우리 가족은 원만하며 부모 역할을 스스로 잘 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그림 1]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가족건강성 비교

[그림 2]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가구특성별 부모효능감 비교



6) 가족관계를 측정하는 15개의 하위문항 점수의 평균을 산출함(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항상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함).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좋다는 의미임.
 7) Gibaud-Wallston & Wandersman(1978)이 개발하고 신숙재(1997)가 개발한 효능감(9문항), 불안감 및 좌절감(4문항),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3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PSOC 척도를 사용함(류정희 외, 2019: 268, 재인용). 평균 점수는 부모효능감 9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임.

라. 양육 및 돌봄

■ 교육·보육기관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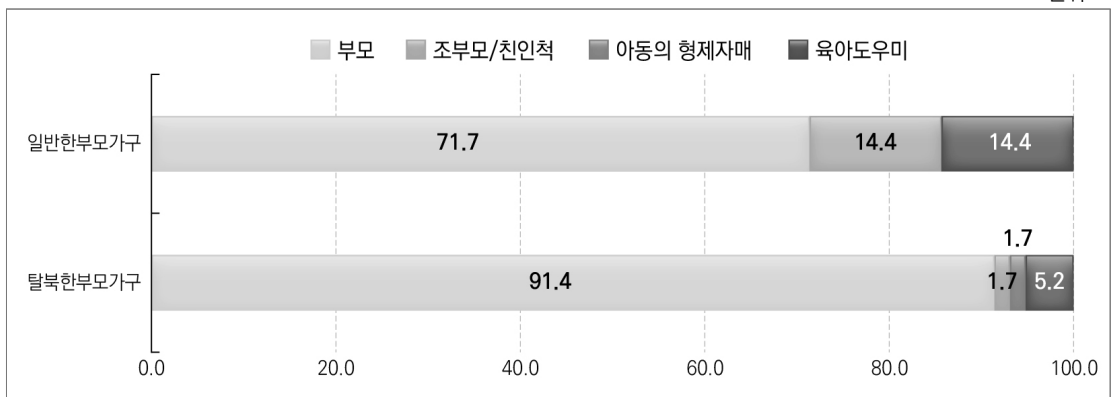
- ◆ 탈북가정 영유아 대부분(83.4%)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음. 이는 일반가정의 영유아(66.4%)보다 높고, 일반 한부모가정의 85.8%보다 낮음.
- ◆ 월평균 교육·보육비는 약 26만원이며 가구특성별(한부모, 수급,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음.

■ 방과후 자녀 양육실태

- ◆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마친 후에는 대부분 집에서 부모가 돌보는 것으로 나옴. 이러한 경향은 일반가정도 동일함.
 - 방과후 부모 돌봄 비율이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88.9%, 일반가정은 92.6%로 일반가정의 부모 돌봄 비율이 높음.
- ◆ 그러나 한부모가구 간 비교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정(91.4%)이 일반가구(71.1%)보다 부모 돌봄 비율이 더 높음. 한부모가구에서 자녀 방과후에 주양육자의 돌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주양육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가구 경제의 취약성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음.

[그림 3]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와 일반 한부모가구의 방과 후 돌봄자 현황

단위: %



■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⁸⁾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주양육자가 자가보고한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27.54점으로 일반가정의 양육스트레스 27.77점보다 낮음.
 - 수급가구 간 비교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가정(28.75점)보다 일반가정(30.99점)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 비수급 가구 간 비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26.40점)보다 일반 가정(27.19점)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음.
 -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29.86점)보다 일반 한부모가구의 양육스트레스(31.74점)가 높고, 양부모 가구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양육스트레스가 더 낮음.

마. 여가 및 활동

■ 자녀의 매체 이용 실태: TV, 책, 스마트폰 등 이용 정도

- ◆ TV 시청과 책읽기는 일반가정의 영유아들이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컴퓨터 기기는 탈북가정의 영유아들이 더 많이 이용함.
 - 일례로 영유아 자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문항에서 탈북가정은 약 26%, 일반가정은 약 50%의 응답이 나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하루 5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은 탈북가정 4.0%, 일반가정 0.4%로, 탈북가정이 훨씬 많음.
- ◆ 수급/비수급 가구, 한부모/양부모 가구 간 비교에서도 탈북가정의 영유아들이 일반가정보다 TV 시청과 책읽기를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은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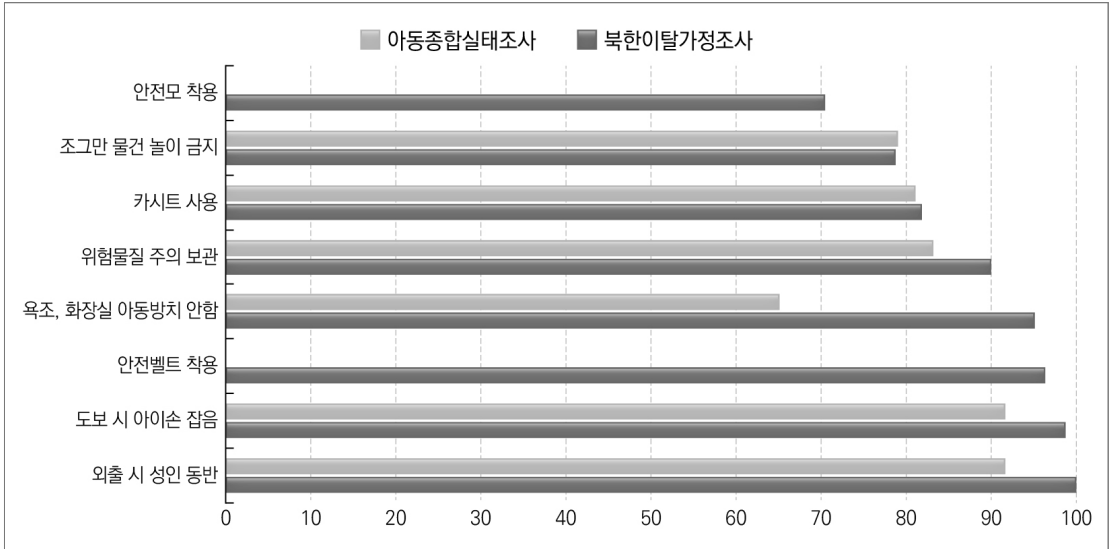
바. 안전 및 위험행동

■ 안전수칙 준수 비교: 북한이탈주민 가정 vs 일반가정

- ◆ 북한이탈가정 부모는 전반적으로 일반가정 부모보다 영유아의 안전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었음.

8)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총 11개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로 측정해서 최소 11점에서 최대 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류정희 외, 2019: 290).

[그림 4] 안전수칙 준수 비교



주: 1) 각 문항별 '예'응답 비율만을 제시함. 막대기가 길수록 안전수칙을 잘 지킨다는 의미임.
 2) 안전모 착용 문항과 안전벨트 착용 문항에 대해 비해당을 제외한 결과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해당응답자가 없었음.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에 비해 평소에 어른 없이 아이를 혼자 두는 경우도 적었음. 하지만 혼자 둘 경우 그 시간은 북한이탈가정이 더 길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사례수(5사례)가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
 - 탈북가정(4.2시간) > 일반한부모가정(2.4시간) > 일반가정(1.1시간).
- ◆ 자녀돌봄 공백 시 필요한 지원에서도 차이가 있었음. 탈북가정에서는 '자녀 하원 등 편의제공'과 '학습지도 도우미 파견'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일반 한부모가정에서는 '야간돌봄 편의제공'과 '식사제공 편의제공'을 가장 많이 응답함.

사. 주거·지역사회 환경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

■ 주거형태와 주거환경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약 76%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음. 이는 초기 정착지에서 정부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제공받기 때문임.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평균 방 개수는 2.2개로, 일반가정의 평균 방 개수 2.6개보다 적음.

-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은 1~2인 세대는 13평, 3인 이상 가정은 18평 이하 임대아파트 제공이 원칙임. 대개 안방겸거실, 작은방, 부엌, 화장실로 구성됨.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일반가정보다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집공간의 적정성에 대한 불만이 높았는데, 이는 가족 구성수원 수 대비 적은 방 개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집 주변 생활환경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전반적으로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 관련시설, 의료시설, 공공기관(주민센터, 경찰서),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안전하고 창의적인)놀이터 등의 접근성이 편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5 참조).

[그림 5] 집 주변 생활환경: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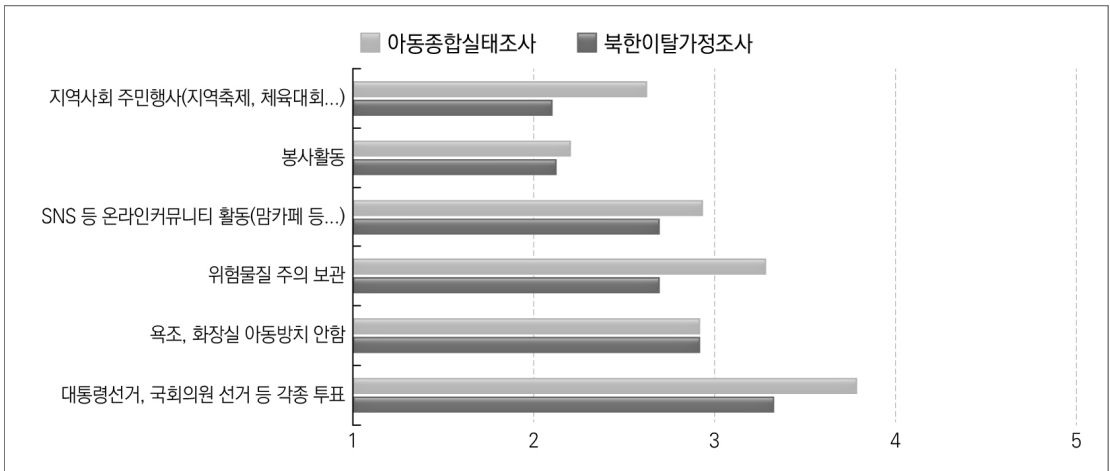


주: 각 문항별 긍정응답 비율을 도식화함.

■ 지역사회 활동 참여 정도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봉사활동, 주민행사 참여도가 가장 낮음. 이에 비해 대통령선거 등 각종 투표에 대해 참여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6] 지역사회 활동 참여: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주: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1점'~'매우 자주 참여한다 5점'으로 평균을 산출함.

아. 물질적 환경

1) 결핍지수

- UNICEF 아동결핍지수 14개 문항(연구진 추가 1개 문항까지 총 15개 문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탈북가정 영유아는 약 83%가 결핍수준으로 나타나, 일반가정 영유아의 약 40%에 비해 2배 이상 결핍함.

<표 1>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일반가정 영유아 자녀의 결핍지수: 문항별

단위: %

| 결핍문항 | 북한이탈 가정조사 | 아동종합 실태조사 | $\chi^2(df)$ |
|---|-----------|-----------|---------------|
| 1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 31.8 | 3.3 | 148.382(1)*** |
| 2 하루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 25.2 | 10.0 | 27.362(1)*** |
| 3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 35.8 | 11.3 | 60.254(1)*** |
| 4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 26.5 | 10.6 | 28.692(1)*** |
| 5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 38.4 | 22.9 | 16.246(1)*** |
| 6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 74.2 | 34.9 | 81.666(1)*** |
| 7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 29.8 | 13.2 | 26.798(1)*** |
| 8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다 | 30.5 | 11.1 | 40.134(1)*** |
| 9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 49.0 | 13.2 | 108.807(1)*** |

| 결핍문항 | 북한이탈 가정조사 | 아동종합 실태조사 | $\chi^2(df)$ |
|---|-----------|-----------|--------------|
| 10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 1.3 | 6.7 | 6.694(1)** |
| 11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 25.2 | 6.7 | 50.866(1)*** |
| 12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 3.3 | 6.9 | 2.823(1) |
| 13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51.0 | 22.8 | 51.536(1)*** |
| 14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 27.2 | 18.1 | 6.672(1)* |
| 결핍지수 ¹ | 82.8 | 39.9 | 94.893(1)*** |
| 추가 인스턴트 식품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 24.5 | 50.6 | 35.055(1)*** |

주: 1) 결핍지수는 14개의 결핍 문항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의미함. 수치가 높을수록 결핍이 많다는 의미임.

2)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별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추가문항의 경우는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 ◆ 수급가구 간 비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결핍지수가 약 89%, 일반가정의 결핍지수 약 67%가 나옴.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더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 수급가구의 결핍이 큰 것으로 나온 항목은 하루 세끼 식사(결핍문항 1), 정기적인 여가활동(결핍문항 6)임.
 - 일반 수급가구는 인터넷 연결(결핍문항 10),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결핍문항 12),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기회(결핍문항 13), '인스턴트식품 주 3회 이상 섭취'(추가)가 탈북 수급가구보다 결핍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 수급가구별 영유아 자녀의 결핍지수: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단위: %

| 결핍문항 | 전체 | 탈북 수급가구 | 일반 수급가구 | $\chi^2(df)$ |
|-------------------------------|------|---------|---------|--------------|
| 1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 17.2 | 32.9 | 8.5 | 19.530(1)*** |
| 2 하루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 25.6 | 32.9 | 21.5 | 3.154(1) |
| 3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 33.0 | 41.1 | 28.5 | 3.375(1) |
| 4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 27.6 | 32.9 | 24.6 | 1.597(1) |
| 5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 42.9 | 47.9 | 40.0 | 1.205(1) |
| 6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 64.5 | 80.8 | 55.4 | 13.216(1)*** |
| 7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 32.0 | 42.5 | 26.2 | 5.715(1)* |

| | 결핍문항 | 전체 | 탈북 수급가구 | 일반 수급가 구 | $\chi^2(df)$ |
|--------|---|------|------------|----------------|--------------|
| 8 |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다 | 36.0 | 41.1 | 33.1 | 1.305(1) |
| 9 |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 42.9 | 61.6 | 32.3 | 16.428(1)*** |
| 10 |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 13.3 | 2.7 | 19.2 | 11.025(1)*** |
| 11 |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 23.2 | 32.9 | 17.7 | 6.058(1)* |
| 12 |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 9.9 | 2.7 | 13.8 | 6.493(1)* |
| 13 |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54.2 | 58.9 | 51.5 | 1.022(1) |
| 14 |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 44.3 | 31.5 | 51.5 | 7.61(1)** |
| | 결핍지수 | 74.9 | 89.0 | 66.9 | 12.157(1)*** |
| 추 가 | 인스턴트 식품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 42.9 | 24.7 | 53.1 | 15.418(1)*** |

주: 1) 결핍지수는 14개의 결핍 문항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의미함.

2)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별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추가문항의 경우는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 ◆ 한부모가구끼리 비교하면 북한이탈주민 가정이(88.7%), 일반가정(54.3%) 보다 결핍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연결', '인스턴트 식품 주 3회 이상 섭취' 항목만 일반 한부모가구 영유아가 더 결핍되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구의 결핍이 큰 것을 나타남.
 - 특히, 하루 세끼 식사(결핍문항 1), 정기적인 여가활동(결핍문항 6), 자녀가 다니는 학교·어린이집 등에 내는 참가비 지불 능력(결핍문항 8), 집에서 자녀만의 조용한 공간(결핍문항 9), 새옷 구입 능력(결핍문항 11),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기회(결핍문항 13)의 결핍이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 가구유형별 영유아 자녀의 결핍 실태: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단위: %

| 결핍문항 | 전체 | 탈북 한부모 가구 | 일반 한부모 가구 | $\chi^2(df)$ |
|---|------|-----------------|-----------------|--------------|
| 1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 | 17.7 | 38.0 | 6.3 | 31.505(1)*** |
| 2 하루 적어도 한 번은 육류 또는 생선을 섭취한다 | 21.2 | 32.4 | 15.0 | 8.282(1)** |
| 3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매일 섭취한다 | 28.3 | 42.3 | 20.5 | 10.651(1)** |
| 4 아동의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는 책을 보유하고 있다 | 24.2 | 35.2 | 18.1 | 7.252(1)** |
| 5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다 | 39.9 | 47.9 | 35.4 | 2.946(1) |
| 6 정기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 56.6 | 81.7 | 42.5 | 28.440(1)*** |
| 7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기구들이 있다 | 27.8 | 39.4 | 21.3 | 7.500(1)** |
| 8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현장학습 참가비를 지불할 수 있다 | 26.8 | 42.3 | 18.1 | 13.542(1)*** |
| 9 학교나 보육기관에서 내주는 과제나 책을 읽기 위해 충분한 면적과 적당한 채광이 되는 조용한 공간이 있다 | 35.9 | 59.2 | 22.8 | 26.119(1)*** |
| 10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 | 10.6 | 2.8 | 15.0 | 7.083(1)** |
| 11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지 않은 새 옷이 있다 | 17.7 | 31.0 | 10.2 | 13.474(1)*** |
| 12 적어도 두 켤레의 신발을 가지고 있다 | 7.6 | 2.8 | 10.2 | 3.580(1) |
| 13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놀거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41.4 | 60.6 | 30.7 | 16.729(1)*** |
| 14 생일파티나 가족행사 등을 할 기회가 있다 | 33.3 | 31.0 | 34.6 | 0.274(1) |
| 결핍지수 | 66.7 | 88.7 | 54.3 | 24.253(1)*** |
| 추가 인스턴트 식품 등을 주 3회 이상 먹는다 | 42.4 | 26.8 | 51.2 | 11.119(1)** |

주: 1) 결핍지수는 14개의 결핍 문항 중 적어도 2개 이상 결핍('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으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의미함. 수치가 높을수록 결핍이 많다는 의미임.

2)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14개의 하위문항별 '아니오'라고 응답한 비율임. 추가문항의 경우는 '예'라고 응답한 비율임.

* $p < .05$, ** $p < .01$, *** $p < .001$.

2) 박탈지수

■ 박탈지수는 식생활, 의생활, 주택 및 주거환경, 의료 및 건강,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저축, 교육, 경제적 어려움 등 9개 영역과 31개 항목을 응답한 결과값임 (박탈항목은 부록 참조).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박탈지수는 약 11.7개로 일반가정의 약 8.6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정보다 열악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가구유형별로 박탈지수의 차이를 보면, 수급가구 간 비교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

정이 약 13.5개, 일반가정이 약 13.1개이며 한부모가구 간 비교에서는 전자가 13.13개, 후자가 11.20개로 나타남. 즉, 수급 및 한부모가구 모두,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더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음.

- ◆ 박탈실태를 항목별로 보면, 저축(미래대비) 영역이 50%대로 박탈정도가 가장 높음. 다음으로 40% 전후의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으로는 의생활 5, 주택 및 주거 환경 7, 가족활동및문화생활 14와 16, 교육 22임(표 4에서 굵은 표시 참조).
- ◆ 박탈실태를 비교한 결과, 5개 항목을 제외한⁹⁾ 29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박탈수준이 더 크게 나타남.

〈표 4〉 북한이탈주민 가정과 일반가정의 박탈지수 비교

단위: 개, %

| 박탈지수 | 결핍문항 전체 평균(표준편차) | 북한이탈 | 아동종합 | $\chi^2(df)$ |
|------------------|---|-------------------------|------------------------|---------------|
| | | 가정조사 11.66 (4.72) | 실태조사 8.59 (3.80) | |
| 식생활 | 1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기나 생선을 사먹는다 | 13.9 | 5.9 | 12.531(1)** |
| | 2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신선한 과일을 사먹는다 | 11.3 | 6.8 | 3.638(1) |
| | 3 가끔 기호식품(차, 커피, 과자류, 아이스크림, 음료 등)을 사먹는다 | 15.2 | 3.5 | 35.018(1)*** |
| 의생활 | 4 매우 추운 날 입을 수 있는 외투, 코트, 파카, 털이나 가죽옷 등을 두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 19.9 | 3.2 | 66.520(1)*** |
| | 5 음식점 갈 때와 같은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여름과 겨울 각각의 정장을 한 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 43.0 | 6.6 | 160.380(1)*** |
| 주택 및 주거 환경 | 6 춥지 않도록 난방이 적절히 갖춰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 7.9 | 2.9 | 9.026(1)** |
| | 7 가족 수나 구성원의 연령에 맞게 적절한 방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 39.1 | 5.8 | 147.794(1)*** |
| | 8 걸어서 10분 안의 거리에 버스 정거장이나 전철역이 있다 | 9.9 | 7.2 | 1.389(1) |
| | 9 옥탑방이나 (반)지하가 아닌 자상에 거주하고 있다 | 32.5 | 5.5 | 107.174(1)*** |
| 의료 및 건강 | 10 전용 수세식의 화장실 및 온수 목욕시설을 갖추고 있다 | 9.3 | 2.9 | 13.723(1)** |
| | 11 질병으로 오랫동안(3개월 이상) 앓고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진료받고(받을 수)있다 | 33.1 | 9.1 | 66.970(1)*** |
| | 12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고(갈 수) 있다 | 11.9 | 4.6 | 12.837(1)** |
| | 13 의사에게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나 필요한 (일반)의약품을 구입하고(할 수) 있다 | 6.6 | 4.0 | 2.098(1) |

9) '주 1회 신선한 과일 섭취', '도보 10분 거리의 대중교통 확보', '필요한 의약품 구입 가능', '가족의 특별한 날 기념 가족 행사 수행', '집세가 밀려 이사함'

| 결핍문항 | | 북한이탈 가정조사 | 아동종합 실태조사 | $\chi^2(df)$ |
|-------------------|---|-----------------|----------------|--------------|
| 박탈지수 | 전체 평균(표준편차) | 11.66 (4.72) | 8.59 (3.80) | |
| 가족활동 및 문화생활 | 14 1년에 한 번 이상 가족 또는 자녀와 2~3일 정도의 여행(피서)을 다녀온다 | 37.1 | 21.9 | 16.169(1)*** |
| | 15 가족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외식 등) 하고 있다 | 17.2 | 12.5 | 2.525(1) |
| | 16 정기적으로 혹은 종종 가족 또는 자녀와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영화, 공연)을 할 수 있다 | 40.4 | 16.2 | 46.997(1)*** |
| 사회적 지지 | 17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 | 20.5 | 5.3 | 42.423(1)*** |
| 저축 (미래 대비) | 18 일상적이지 않은 지출에 대비(저축 등)하고 있다 | 52.3 | 24.2 | 49.653(1)*** |
| | 19 노후를 위해 (국민, 개인연금)에 가입하거나 저축하고 있다 | 59.6 | 28.8 | 54.554(1)*** |
| | 20 사회보험 외의 사적보험(의료보험, 종신보험, 생명보험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해 있다 | 29.8 | 21.4 | 5.147(1)* |
| 교육 | 21 고등교육(전문대학 및 대학교 이상)을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 31.1 | 6.5 | 85.170(1)*** |
| | 22 원하는 경우 학원수강이나 과외를 시키고 있다(시킬 수 있다) | 42.4 | 11.6 | 88.863(1)*** |
| | 23 필요한 기본참고서나 도서를 사주고 있다(사줄 수 있다) | 30.5 | 7.4 | 70.218(1)*** |
| | 24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양육(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을 책임질 수 있다 | 15.9 | 5.9 | 18.773(1)*** |
| 경제적 어려움 | 25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 24.5 | 4.2 | 77.908(1)*** |
| | 26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 25.8 | 6.8 | 52.917(1)*** |
| | 27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 9.9 | 4.9 | 5.952(1)* |
| | 28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 15.2 | 4.0 | 30.122(1)*** |
| | 29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 15.9 | 3.9 | 34.450(1)*** |
| | 30 집세(월세·전세금)가 밀렸거나 또는 그 이유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 8.2 | 6.0 | 0.779(1) |
| | 31 가구원(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 10.0 | 2.0 | 18.363(1)*** |

주: 1) 자녀의 생활환경에 대한 31개의 하위문항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하고 있지 않거나, 박탈 경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경제적 영역은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3) '집세가 밀려 이사함', '자녀의 공교육비 미납' 항목은 '비해당' 제외하고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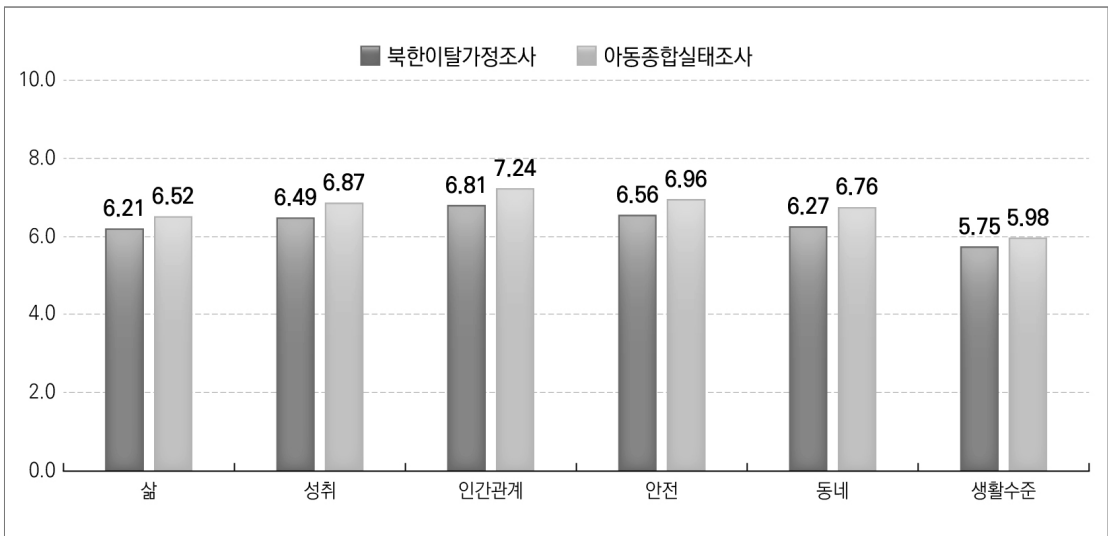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자.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일반가정과의 비교

-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문항과 동일하게 6개 분야(①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10계단 사다리, ②지금까지 성취한 것에 대한 만족도, ③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 ④귀하의 안전, ⑤동네에 대한 만족도, ⑥생활수준)에 대한 만족의 만족도 결과를 보면, ⑥생활수준이 5.75점으로 가장 낮고, ③인간관계가 6.81점으로 가장 높음.

- ◆ 6개 분야 모두 일반가정보다 만족도가 낮음.

[그림 기] 6개 분야 10점 척도 응답 종합: 탈북가정과 일반가정 비교



3

정책목표 및 정책방안

-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가. 정책목표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서 육아정책 확대 및 강화를 통한 건강한 가족으로서 안착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생애초기단계부터 교육·보육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 일반가정과의 물질적 환경 격차 완화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안정적 정착 도모

나. 정책방안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통합적 지원범위 확대
 - ◆ 취약계층 아동의 대표적인 맞춤형 서비스인 드림스타트사업의 보건·의료, 상담·치료 중심에서 의식주, 의료 및 건강, 문화생활, 사회적지지, 교육, 취업지원 등 사회 전반적 서비스로 확대함.
- 가구유형별에 따른 세밀한 맞춤형 지원
 - ◆ 탈북가정 내에서도 수급/비수급, 한부모/양부모 가구에 따라 처한 상황 및 욕구가 다르므로 가구특성별로 우선순위를 달리해서 지원정책을 수립, 추진함.
-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원
 - ◆ 탈북가정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높지만 저축, 보험 등 미래대비가 매우 취약함.

다. 세부과제

- ‘탈북민 심리치료 주치의사업’(안) 도입: 우울수준이 높은 탈북 수급·한부모 가구의 주양육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
 - ◆ 탈북가정의 주양육자의 우울수준은 상당히 높음. 한부모/수급가구는 더 심각함. 남북 하나재단(2020)의 실태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충동경험이 있다는 비율(13%) 역시, 일반국민(5.2%)보다 월등히 높음.
 -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우울수준은 북한에서의 힘든 생활, 탈북,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불법) 체류, 남한 정착의 어려움 등 인생을 살아오면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문제이므로 단기간에 치료되기 어려움.
 - ◆ 하나원에서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정서 및 우울 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은 퇴소 후에도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역의 병원과 연계한 “북한이탈주민 심리 주치의사업”(안)과 같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
 - 탈북 수급·한부모가구의 주양육자에게 우선 지원함.
- 탈북 수급 한부모가구 영유아에게 우선적으로 치과치료비 지원
 - ◆ 현행 “탈북민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관계부처합동, 2021: 26)지원정책에서 탈북 수

급·한부모가구의 영유아 자녀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치과치료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탈북 수급/비수급 한부모가구에게 산후조리서비스 우선 지원

- ◆ 북한이탈주민 주양육자들 대부분은 경제적 도움, 생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함.
- ◆ 배우자 없는 탈북 수급/비수급 한부모가구가 출산을 하면,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
 - 현재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120% 이하)과 태아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달리 책정되어 있음. 이에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고 가구유형(북한이탈주민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지원 기준에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명시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는 어린이집 입소 1, 2순위 자격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의 영유아도 입소 1순위가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영유아도 입소 1순위에 포함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음.
 -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를 명시할 것을 제안함.¹⁰⁾

■ 미래행복통장 가입 범위 확대

- ◆ 2014년에 도입한 이 제도의 골자는 탈북민의 근로소득 저축분에 대해 동일 금액을 정부가 매월 매칭 지원(최대 월50만원, 최장4년)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을 돕는 것임.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는, 그것도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있는 탈북민만 이용 가능함.
- ◆ 이 통장을 근로소득은 없지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탈북가정도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매월 매칭 지원함. 탈북 수급가구도 자녀교육을 위해 어린이집의 특성화비용을 매달 내는 경우가 많은데, 특성화비용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보존해 주고, 해당

10) 이 정책제언은 2022년 6월 22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반영됨.

비용을 강제(의무) 저축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월 매칭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만함. 통장명의로 자녀이름으로 하고, 자녀가 성인이(만 18세 이상) 된 후에 찾을 수 있도록 함.

- 본 연구조사에 의하면, 탈북가정 자녀의 월평균 교육·보육비는 평균 26만원이며 수급가구도 매달 약 23만원을 내는 것으로 조사됨.

■ 어린이집·유치원을 부모교육 및 육아정보 플랫폼으로 활용

- ◆ 탈북가정의 영유아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기관에 대한 만족도도 높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들 가정의 주양육자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제공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서비스와 연계하여 부모상담, 양육서비스, 어린이집 이용정보 등을 제공함.

■ 북한이탈주민 가정 실태조사 법제도화

- ◆ 2000년대 초반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으로 성장했고 결혼·출산을 하는 생애단계에 접어들면서 모집단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
- ◆ 북한이탈주민 개인 단위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북한이탈주민 가정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문화함. 본 연구의 비교대상인 아동종합실태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실태조사도 마찬가지로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 참고 문헌 |

관계부처합동(2021).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남북하나재단(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류정희 외(2019).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진·박창현·김문정(2021).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유아 지원방안 연구